becoming nature
phototransfer and acrylic colors on canvas_51x61cm_2024

맹혜영(Young Maeng) 작가는 포스트휴머니즘 철학, 특히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예술실천 기반 연구는 인간, 동물, 식물, 자연환경, 비유기적 기계 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현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미술대학의 회화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현대미술 매체를 융합하는 작업과 강의를 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https://www.hyeyoungmaeng.com/cv.html
email: hyeyoungmaeng@gmail.com

ascending cat
phototransfer and acrylic colors on canvas_51x61cm_2024

포스트 휴먼시대의 초상

Portraits of AI Humanity in the Post-Human Era

allegory of AI vanities phototransfer and acrylic colors on canvas_51x61cm_2024

맹 혜 영 초대전

Young Maeng Solo Exhibition

2024. 7월 23(화) - 7월 28(일)
11:00AM - 6:00PM

WAVE ARTSPACE

웨이브 아트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28 (B1) I 02 735 7787 I www.waveartpace.com
ⓒ 본 도록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전체 혹은 부분을 복사, 복제하거나 기타 사진 정보기기에 의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란화도(four noble ones) – orchid
phototransfer and acrylic colors on canvas_40x50cm_2024

묘접죽도(four noble ones) – bamboo
phototransfer and acrylic colors on canvas_40x50cm_2024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성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중심 인공지능 센터"(Stanford HAI, Human-Centered AI)는 AI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그러나 "인간중심"이라는 용어는 인간 외 모든 자연 존재의 가치를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간중심주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자연 파괴와 기후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질 들뢰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은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며, 인간과 동식물, 자연환경, 비유기적 기계 모두에게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EDI)을 적용하는 새로운 윤리 의식을 요구한다.
"포스트 휴먼 시대의 초상" 프로젝트는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이미지를 캔버스에 전사하고 회화적 기법과 혼합하여, 인간과 자연, 인공지능 동반자 로봇이 비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윤리적 담론을 시각화 한다.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이 전시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할 것이다.

2024 맹 혜영

As the role and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apidly expand in contemporary society, ethical and 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is technology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Stanford University's Human-Centered AI (HAI) focuses on studying the impact of AI on human life. However, the term "human-centered" raises ethical concerns about anthropocentrism, which values all natural entities solely as means for human benefit, leading to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limate disasters. In posthumanism, Gilles Deleuze's non-human ontology critiques this anthropocentrism and calls for a new ethical consciousness that applies 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EDI) to humans, animal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organic machines.
This new body of work transfers AI-generated images onto canvas and blends them with painting techniques to visualize philosophical questions and ethical discussions about how humans, nature, and AI companion robots can coexist in a non-anthropocentric perspective. Exploring interac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entities, this exhibition offers viewers a new perspective and prompts deep reflection on how we envision and prepare for the future.

2024 Young

-This exhibition was funded by the FY 24/25 College of Arts and Humanities Faculty Awards for Research, Scholarship, and Creative Activity fro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